

文化革命이후의 中國과 韓中經濟交流

黃明水*

目 次

I. 序 言	2. 經濟改革과 開放政策
II. 文化革命時代의 中國	3. 六·四天安門事件
1. 毛澤東의 權力闘爭	IV. 韓·中經濟交流
2. 林彪事件과 天安門事件	1. 韓中經濟交流의 起始
3. 華國鋒의 失脚	2. 韓中經濟交流의 現況
III. 經濟改革과 開放時代의 中國	3. 韓國의 對應策
1. 鄧小平의 再復權	V. 要約 및 結言

I. 序 言

1990년 말 현재 中國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11억 4,333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¹⁾ 국토면적은 960만㎢, 民族은 漢族 이외에 回族, 몽골족, 조선족, 위구르족, 티벳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이 공존하고, 민족구성은 漢族 93.3%, 소수민족 6.7%(82년 7월 인구센서스)이다.

이러한 수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와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中國의 역사와 사회경제 현황을 모두 밝히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中國의 역사와 사회경제의 줄거리의 많은 연구문헌과 현지조사보고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는 毛澤東이 주도한 文化大革命(1966~78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4分의 1세기 간의 中

* 本研究所 所長, 商經大學 經濟學科 教授

1) 「人民日報」(海外版), 1991年 2月 23日付. 더욱 출생율 21.06%, 사망율, 6.67%, 자연증가율 14.9%이며, 지난 1년간에 1,629만명이 증가하고 있다. 가령 한 여성이 3명만 출산한다면 서기 2000년에는 14억 2천만명으로 인구가 증가한다고 한다.

產業研究

國의 역사와 사회경제 현황을 고찰하여 오늘의 中國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또한 韓中經濟交流에 관하여도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논하고, 이를 기초로 韓國과 中國간의 經濟交流에 대한 對應策을 모색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현지시찰에서 얻은 情報(見聞等)²⁾와 기존의 각종 관계문헌을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本論에 들어가기에 앞서 1949년 10월 1일의 中華人民共和國(中國)의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의 中國의 역사와 사회경제 현황을 간단히 요약하여 둔다.

1945년 8월 15일의 제 2 차대전(태평양 전쟁) 종료후 1946년부터 蔣介石의 國民黨과 毛澤東의 共產黨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즉 1936년에 소위 西安事件을 계기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國共合作을 하여 抗日統一戰線을 조직하여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해 왔으나, 일본군이 패배하고 제 2 차대전이 끝난후 국민당과 공산당사이에 결정적인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이 전쟁에서 국민당은 패배하여 대만으로 후퇴했으며, 중국대륙에서는 中華人民공화국(중국)이 성립되었다.

後者에서는 中國共產黨과 民主同盟을 중심으로 한 民族資本家의 연립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체제를 新民主主義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체제는 곧 격동중에 붕괴되었다. 결국 中國은 社會主義體制로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 新中國의 성립과 동시에 외국자본과 관료자본이 국유화되었으며 土地改革에 의해서 지주의 토지가 농민에게 배분되었다. 얼마후 人民公社運動이 진행되어서 농민의 집단화가 단기간에 완성되었다.

이어서 大躍進運動이 전개되어 농촌 각지에서 대량의 노동투입(人海戰術)으로 土製鎔鑄爐가 건설되고 제철이 시작되었으나 질이 나쁜 철이 생산되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人海戰術에 의해 대대적인 수리·관개사업도 추진되었으나 기술부족과 난립공사로 성공하지 못했다.

大躍進運動의 실패후 劉少奇의 지도하에서 調整期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조정기는 국영기업의 간부와 民族資本(민간자본)의 세력이 강하여 모택동의 영향력은 후퇴했다. 그후 모택동은 실추된 권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文化革命을 일으켰다. 문화혁명의 격동중에서 많

2) 筆者は 지난 1991년 2월 20일~28일까지, 教授中國研修團(30여명)의 일원으로 社會主義 中國을 訪問하여, 北京, 西安, 上海, 杭州(西湖), 香港등을 시찰하였으며, 특히 北京大學과 西安의 交通大學에서는 中國經濟의 現況등 많은 유익한 설명을 들었다. 중국시찰에서 見聞한 것은 해당 脚注에서 인용할 것이다. 支援을 해준 學術振興財團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은 공산당간부가 숙청되고 행정기관이나 공산당 조직도 마비되었다.

文革의 과정에서 민족자본가는 심한 타격을 받았으며 경영권도 박탈당하였다. 또한 富農과 地主도 박해를 받았으며, 전문기술자나 인테리의 생활수준도 하락 하였다. 이들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생명을 잃은자도 많았다.

당시 文革은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라하여 마치 러시아혁명에 있어서의 社會主義革命인 것처럼 선전되었다.

훗날의 실권자 등소평은 文革중에 周恩來의 도움으로 복귀했으나 (74년 10월) 주은래의 사망과 사망후의 추도식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天安門事件으로 다시 추방되었다. 그 후 한때 江青, 王洪久등의 四人幫이 실권을 장악했으나 모택동의 사망후 華國鋒이 모택동의 후계자로 부상했다. 화국봉은 사인방을 추방했으며, 그후 얼마안가서 등소평이 재복귀(77년 7월)하여 실권을 장악했다.

등소평은 人民公社를 폐지하고 經濟改革과 開放政策을 추진하였다. 인민공사는 농민의 自留地를 없애고 자유시장을 봉쇄하며 임금의 平等主義(惡平等)를 실시함으로서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농업생산을 비롯하여 經濟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침체를 초래했다.

이상의 經濟的 침체에 대한 타개책이 요구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민공사가 폐지되고 농가에서는 生產責任制(請負制)가 실시되고 자유지가 인정되었으며, 부업이 장려되고 自由市場제가 부활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되어 갔다. 또한 都市·공업에서도 경제개혁이 추진되었다. 1978년 12월의 第11期 3中全會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개혁 대외적으로는 개방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10년간(1979~1989 현재)에 農·工·商業등의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이 실현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4개의 經濟特區와 14개의 開放都市와 3經濟開放區가 설치되어 자유주의세계와의 交易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등소평 집권후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소평, 胡耀邦, 趙紫陽등의 소위 改革派와 改革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균형을 중시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陳雲(政治局常務委員), 姚依林(부수상)등의 保守派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대체로 改革派가 주도하여 왔으나 1989년 6월의 天安門事件과 趙紫陽의 실각후 江澤民, 李鵬, 楊尚昆 등의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II. 文化革命時代의 中國

文化革命(文革)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시기구분되어 논하여지고 있다. 제 1 단계는 1965년 11월부터 1969년까지의 모택동의 權力鬪爭(實權派 打倒鬪爭)期間이고, 제 2 단계는 1969년 9월부터 1973년까지의 林彪事件 期間이며, 제 3 단계는 1973년 8월에서 1976년의 天安門事件과 四人幫打倒의 期間까지이다. 다만 사인방을 추출하여 권좌에 오른 華國鋒도 기본적으로 모택동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국봉이 실각되기까지를 논하기로 한다.

1981년 6월의 ‘歷史的 決議’에 의하면 ‘文革’은 指導者(毛澤東)의 과오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이 반혁명 집단에게 이용되어서 당과 국가와 각 민족인민에게 온 재난을 갖게 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각 단계별로 文革의 특징을 요약하기로 한다.

1. 毛澤東의 權力鬪爭

文革은 1965년 11월 10일의 上海 「文匯報」에서 발표된 姚文元 論文 ‘新編歷史劇「海瑞의 免官」을 評한다’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요문원은 吳晗을 비판하여 ‘封建時代의 관료를 美化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모택동 비판=필자)가 있는것이 명백하다’고 말하고 사극 「海瑞의 免官」은 「一株의 毒草」라고 비판하고 있다.³⁾ 이 이후 劇作家의 田漢, 歷史學者의 裴伯贊등이 비판을 받았으며, 이어서 彭真 市長을 정점으로 하는 北京市 黨委와 鄧拓등의 三家村그룹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려졌다. 비판을 받은 彭真등은 1966년 2월 이른바 ‘2月提綱’을 작성하여 문제를 학술, 문화면에 한정 하려고 했다. 이것을 불만으로 여긴 모택동은 林彪 국방부장의 협력을 얻어서 彭真을, 이어서 羅瑞鄉, 陸定一(中央宣傳部長)등을 실각시키고 동시에 5·16 통달(毛澤東의 黨中央文革小組의 조직에 관한 指示)에 의해 ‘2月提綱’을 철회시키고, 동시에 文革小組를 발족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처음 文革으로 규정한 것은 1966년 4월 18일의 「解放軍報」社説에서 였다.

1966년 8월 18일 北京의 天安門 광장에 毛澤東 語錄을 손에 쥔 大學生, 高等學生, 中學生

3) 小林文男, 『中國現代史の周邊』, アジア經濟研究所, 1976, P. 2.

으로 구성된 紅衛兵이 대거 출현하였다. 그들은 당초 ‘造反有理’, ‘四舊打破’를 외치면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넓은 사물이나 역사유물을 파괴하였다. 11월에 들어서는 黨에 호응하여 實權派(走資派)의 지도자 타도에 공격의 촛점을 맞추었다. 당이나 행정기관의 간부들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劉少奇나 鄧小平等을 지명하여 비판하는 大字報도 나타났다.

1967년에 들어서는 實權派打倒를 위한 모택동의 권력투쟁에는 노동자도 참가하고 해방군도 개입하게 되었다. 실권파의 저항도 강하고 각지에서 무력충돌이 보였으며 특히 상해, 무한에서 무력충돌이 심하였다. 모택동의 권력투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에서 유소기에 대한 비판이 강해졌다. 드디어 유소기 주석은 1968년 10월의 8期 12中全會의 결정에 따라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당에서 제명되었다. 유소기는 ‘당내 최대 실권자’로써 홍위병에게 체포, 강금 되었고 ‘江青, 康生支配下의 審查委員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이전부터의 ‘배신자’, ‘스파이’라는 누명이 씌여져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黨籍이 박탈당하였다(1968년 10월). 그는 1년뒤의 1969년 11월 옥중에서 병사했다.⁴⁾

1969년 4월에 13년만에 개최된 九全大會에서 林彪는 당중앙을 대표하여 政治報告를 행하였는데 그는 文化大革命은 모택동의 ‘프로레타리아 독재하의 계속혁명의 理論’에 입각한 ‘대규모의 참다운 프로레타리아 革命’이라고 주장하였다.⁵⁾

이 대회에서 채택된 新黨規約은 ‘모택동 사상은 제국주의가 전면적 붕괴에 향하고, 사회주의가 전세계적 승리에 향하는 시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다’라고 규정하고 또 ‘林彪 동지는 모택동동지와 친밀한 전우이며 후계자이다’라고 이례적인 규정을 하여 毛·林體制의 확립을 선언하였다.⁶⁾

新中央委員會에는 林彪·江青계의 사람들이 다수 선출되었다. 林彪는 黨副主席, 陳伯達, 康生은 政治局 常務委員, 江青은 政治局委員으로 당의 요직에 취임했다. 임표는 제2인자로 부각되었다.

여기까지가 文革의 제1단계이며 좁은 의미로는 제1단계만을 文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4) 小島普治外, 『中國近現代史』, 岩波新書 336, 岩波書店, 1988, P. 256.

5) 上揭書, PP. 264~265.

6) 中野謙二, 『中國概論』, 有斐閣, 1986, P. 81.

2. 林彪事件과 天安門事件

文革 제 2 단계는 1969년 9월의 九全大會에서 1973년 8월의 十全大會까지이며 이 기간에 있어서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모택동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임표가 모택동의 암살을 기도했다는 점이다.

十全大會에서 제시된 周恩來의 보고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임표는 1970년 8월 九期 2 中全會에서 反革命쿠테타를 일으켰으나 미수로 끝나고, 1971년 3월 반혁명 무장쿠테타 계획을 세워 9월 8일 毛主席을 살해하여 별도로 중앙정부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음모가 실패로 끝나자 임표는 9월 13일 비행기를 타서 소련으로 탈출하는 도중 「몽골」의 「문텐한」에서 추락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임표사건의 결말이라는 것이다.⁷⁾

九期 2 中全會(1970년 9월)에 있어서의 반혁명 쿠테타라는 것은 임표가 국가주석(劉少奇의 실각후 공석이었다)이 될려고 하였으나 모택동에게 저지당한 것을 말한다. 즉 당시 헌법(1954년 제정)에 의하여 국가주석은 統師權을 가지게 되어 있었는데, 모택동은 국가주석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으나 임표는 이에 반대하였으며, 또한 임표는 「天才論」을 전개하여 모택동을 「天才」로서 추켜올리고 그 자신이 국가주석에 취임하려고 하다가 모택동에게 저지당하였다 것이다.⁸⁾

모택동의 후계자의 지위에 있었던 임표가 쿠테타까지 생각한 것은 모택동의 처인 江青, 張春橋 등의 세력신장이 두려워서 후계자의 지위에 앞당겨 오르려고 쿠�테타를 계획했다는 것이다(1981년 1월의 「임표·江青집단」 재판의 판결문에 의함).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의문이 많다고 하여,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는 자도 많다. 예를 들어서 모택동은 ① 군부의 힘이 너무 강대해 졌다고 판단했다. ② 日美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③ 임표보다 강청 등의

7) 杭州에는 林彪의 병커(지하요새)형의 별장이 있다. 이 별장에는 복잡한 지하통로(迷路)가 여러개 있고, 넓고 화려한 수영장도 있으며, 여러곳에 도청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창문에는 실내를 볼 수 없는 특수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林彪의 아들의 별장도 있다. 언덕같은人工의 山으로써 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을 하고 있다. 이 별장은 林彪의 은신처이기도 한 것이다(1991년 2월 27일 시찰).

8) 文化大革命때 劉少奇가 毛澤東에 의해 탄도된 理由의 하나는 그가 1959년 4월에 毛澤東을 제쳐놓고 國家主席에 就任한데 있었다. 毛澤東이 國家主席을 설치 않는다는 思考를 가진 것은 이때부터 라고 한다(野村浩一 외, 『現代中國の政治世界』(岩波講座, 現代中國, 第1卷), 1989, PP. 231–232).

사인방쪽이 더 충실한 정책실행 그룹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표가 제거되었다는 것이다.⁹⁾

이외에 임표의 실종은 軍官僚와 주은래의 실무파 行政官僚의 대립으로 일어났다는 견해도 있다.¹⁰⁾ 또한 모택동은 ‘변질된 軍의 支配’를 軍의 원래의 궤도에 돌리기 위해 임표를 제거했다는 견해도 있다.¹¹⁾ 아무튼 임표의 실종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것이다.

임표사후 유소기와 함께 實權派(走資派)로서 추방되었던 둥소평이 주은래의 도움으로 다시 부수상으로 복권했다(1973년 4월).

十全大會에 있어서 黨規約 改正으로 임표에 관한 기록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文革과 같은 혁명은 금후 몇번 행하여 지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계속 革命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동대회에서 당부주석에는 周恩來, 王洪文, 康生, 葉劍英, 李德生의 5명이 선정되었다. 임표사망으로 비록 강청은 정치국원으로 며무르고 있었으나 그녀를 비롯한 사인방(江青 · 張春橋 · 王洪文 · 姚文元)의 세력은 강화되었다.

1973년 8월의 十全大會 이후의 文革 제 3 단계에 들어서 임표의 사망으로 세력을 만회한 강청, 王洪文 등은 批林批孔 運動을 일으켜 그들의 정치기반의 확대에 나섰다. 그들은 임표를 비판할 뿐 아니라 주은래까지도 孔子에 비유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1975년 주은래가 병으로 쓰러지고 복원된 둥소평이 중앙의 활동을 주재하기 시작하자 화살은 둥소평으로 돌려지고 ‘右로부터의 반격에 반대하는’ 運動이 시작되었다.

1976년 1월 8일 주은래가 78세로 사망했다. 민중은 4월 5일의 清明節에 天安門광장에서 주은래를 추모하는 한편 大字報를 통하여 文革파의 권력장악에 대하여 불안과 비판의 뜻을 표명했다. 강청등 사인방은 이러한 文革派에 대한 비판을 反革命行爲로 규정하여 민병을 동원해서 탄압을 자행했다. 이때의 사건을 天安門事件이라고 부른다. 천안문사건은 훗날 ‘偉大한 4·5運動’이라고 하여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천안문사건은 모택동의 家父長體制에 대한 민중의 불신의 표명이였던 것이다.¹²⁾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둥소평은 재설각을 하였다. 한편 화국봉이 수상대리(2월 취임)에서 수상으로 승진했다(4월 7일). 同年(76년)

9) 姫田光雄,『中國近現代史』下卷, 東京大學出版部, 1987, PP. 674–676.

10) 中嶋嶺雄編,『中國現代史』, 有斐閣, 1981, P. 231.

11) 藏居久造,「中國社會主義革命における基本命題--林彪事件の本質について一」,『現代中國と歴史像』, 東亞文化叢書2, 東亞文化研究所, 1975, p. 273.

12) 中嶋嶺雄, 前掲書, p. 235.

9월 9일에는 모택동이 82세로 사망했다. 天安門事件 후 首相겸 黨第一主席의 지위에 있던 華國鋒은 10월 7일 葉劍英(국방상)등의 협력을 얻어서 전격적으로 江青, 王洪文, 張春橋, 姚文元의 四人幫을 체포하였다.

사인방에 의해 중상, 박해 받은 자는 72만 9천명, 박해로 사망한 자는 3만 4천명이라는 숫자가 기소장에 의해 밝혀졌다.¹³⁾ 經濟的으로도 5천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文革中의 대중 레벨에 있어서의 무장투쟁까지 포함한다면 피해자의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3. 華國鋒의 失脚

四人幫을 타도한 화국봉은 1976년 10월 7일 中共中央黨主席에 취임하여 黨·政·軍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非四人幫의 文革派, 葉劍英등의 穩健派, 李先念등의 實務官僚 그룹등에 의해 추대되었던 것이다. 화국봉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정치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그는 四人幫비난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렸고, 당주석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모택동이 생전에 그에게 ‘당신이 하면 안심이 된다’라는 文書를 주었다고 널리 선전하였고, 또 퍼레이드시에는 자신의 초상화를 내걸어 ‘英明한指導者’라고 선전하였다. 그는 또 모택동의 유체를 안치하는 기념당을 건립하였고, 毛澤東選集의 간행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취약한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다. 그는 모택동이나 유소기와 같은 「카리스마」性도 갖지 못하였다.

1977년 2월 화국봉은 ‘2개의 모든것’(毛主席의 결정은 모두 지켜야하며,毛主席의 指示는 모두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모든派”的 주장)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였다. 동년 8월 화국봉은 黨大會(11全大會)를 주재하였는데 동대회에서의 그의 정치보고는 사인방에 대한 탄핵과 毛澤東路線의 계승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화국봉은 경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가 주재한 11全大會에서 채택된 당규에는 당의 임무로서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의近代化’(4個의 近代化)를 규정하였으며,¹⁴⁾

13) 姫田光義외, 『中國近現代史』(下卷), 東京大學出版會, 1982, p. 701.

14) 「四個의近代化」(약칭, 四化)라고 하는 말은 1954년 周恩來가 처음 사용하였으나 文革中에 이 말은 자취를 감추고 다시 1975년 1월의 第4期 全民大第1會議때 周恩來가 「四化」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近代화를 위한 경제개혁이 수립된 것은 周恩來의 死後이다.
(立花文平, 『中國はどこへ行く』, 時事通信社, 1988年, p. 163-164.)

다음해의 第5期全人代 第1回會議에서 그는 ‘금세기중에 4개의 現代化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경제를 세계의 전역에 세운다’라고 역설하였으며, 1985년까지 곡물생산은 6천톤으로 끌어 올리며 120개의 대형프로젝트건설을 토대로 하는 ‘國民經濟10個年計劃’을 공표하였다. 이 10개년계획은 서양측의 원조에 의해서 생산의 대약진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과도한 업적 달성을 위해 너무 서둘렀다. 등소평은 화국봉의 10개년계획을 「洋躍進(大躍進의 서양판)」이라고 하여 비판하였다. 화국봉은 많은 성과도 올렸지만 부작용도 많이 낳아 결국에는 그의 지위가 약화되어 갔으며 마침내 실각되고 말았다.

III. 經濟改革과 開放時代의 中國

1. 鄧小平의 再復權

등소평은 文革初期에 실각하고 1973년에 복귀하였으나 1976년의 천안문사건으로 四人幫의 횡책에 의해 재실각하였다가 사인방이 타도된 후 다시 복권했다. 1977년 7월의 10期3中全會에서 華國鋒의 黨主席, 黨中央軍事委主席就任을 추인하는 것과 동시에 등소평의 전직위(黨副主席, 副首相, 軍總參謀長, 政治局常務委員 등)가 회복되었다. 동년 12월 당조직부장이 된 胡耀邦(鄧小平의 직계)은 林彪, 四人幫의 적발, 비판의 시기에 맞추어서 黨, 政, 軍의 인사개편을 추진했다. 그것은 당연히 등소평을 유리하게 하고 화국봉을 불리한 위치에 몰아 놓았다. 등소평은 복권에 있어서 화국봉을 전면 지지한다고는 하였으나, 그 다음해(1979년)에 들어서는 鄧, 華兩者 사이에 입장, 정책등에서 눈에 띄게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3월의 全國과학회의에서 화국봉이 毛澤東思想, 政治優先을 강조한데 대하여 등소평은 근대화, 해외의 선진과학기술의 도입등을 강조하였다. 5월의 全軍政治工作會議에서 는 화국봉은 ‘繼續革命’을 주장하고 등소평은 ‘實事求是’를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양자의 견해차이는 현저해 졌다. 1978년 10월 화국봉파의 吳德이 北京市 黨委第一書記에서 해임되었으며, 11월에 들어서는 ‘天安門事件은 완전히 혁명적인 것이었다’고 평가됨으로서 등소평의 재실각을 결정한 政治局決議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그후에 개최된 동년말의 11期3中全會에서 화국봉의 경제정책이 수정되었다.

1979년부터 黨의 활동중점은 鄧小平의 주장대로 社會主義近代化建設에 옮겨지고 文革이래의 ‘계급투쟁을 핵심으로 한다’라는 슬로건의 사용중지가 동시에 결정되었으며, 文革期에 격렬한 비판을 받은 彭德懷, 淘鑄 黨宣傳部長 등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鄧小平, 胡耀邦이 완전히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8월의 第5期全人代第3回會議에서 趙紫陽이 수상에 지명됨에 따라 華國賓은 완전히 실각하였다. 이리하여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實用主義者들이 중앙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華國賓을 추출하여 당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鄧小平은 1982년 9월의 12全大會에서 黨中央軍事委員主席에 유임되었고, 신설된 黨中央顧問委員會의 주임도 겸하게 되었다. 主席制度의 폐지로 최고위직이 된 總書記에는 胡耀邦이 발탁되었다. 胡耀邦은 ‘社會主義近代化의 새로운局面을 열어가자’라는 제목의 정치보고에서 農工業生產額을 금세기말(2천년)까지는 1980년의 4배로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경제목표를 제시했다.

그 후 1982년 11월말에 개최된 全人代에서는 신헌법이 채택되었는데, 이 신헌법은 그前文에서 ‘국가의 금후의 근본적 임무는 ……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추진시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종래의 ‘繼續革命論’이나 文革 칭찬의 문구는 일체 삭제되었다.

그 후 1987년의 第13全大會에서 胡耀邦이 사임하고(1987년 1월), 그 후임으로 조자양이 총서기에 승진했다. 胡耀邦이나 조자양은 둘 다 鄧小平파이다.

그 후 1989년 6월 4일의 소위 六·四天安門事件으로 趙紫陽은 실각되고, 보수강경파인 康譯民, 李鵬, 陽尚昆 등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2. 經濟改革과 開放政策

1) 經濟改革政策

鄧小平時代의 개막과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경제개혁이,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정책이 추진되었다.

1979년 9월의 黨 第11期4中總會에서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決定’이 채택되어 農業生產責任制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농업생산책임제란 각 농가에 생산을 請負시켜 생산이 많으면 수입도 많아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각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려는

물질적 자극책이다.¹⁵⁾

생산청부제는 1980년 9월 後進的地區에서 먼저 실시되고 이어서 1981년 10월부터 中間的 地區나 先進的地區에서도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¹⁶⁾

이에 의해 소득의 증가에 민감한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켰다. 각 농가의 토지청부사용 기간도 당초에는 1년내지 3년이었으나 그것이 15년으로 연장되었고, 1984년 10월에는 30년 으로 연장되어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계획을 세우게 하였다. 1985년 1월부터 식량이나 棉花의 국가에 의한 統一收買制度가 폐지되어 농민은 생산한 식량의 일부를 직접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主要農產物에 대한 국가의 생산 할당제도도 폐지되어 농민은 농작물의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농산물가격은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게 되었다.

各戶 生產請負制, 부업장려, 시장메카니즘의 도입등에 의하여 중국의 농업생산은 크게 증가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1984년의 식량생산은 4억 712만톤으로서, 사상처음으로 4억톤수준이 되었다. 이후 매년 식량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1986년의 농민소득은 80년의 2배이상으로 증가했다.

人民公社도 해체되었다. 중국정부는 1981년 후반의 농촌조사에 입각하여 인민공사의 ‘政社合一’과 ‘三級(公社·大隊·小隊)所有制’는 이미 필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1983년 10월 ‘政社分離를’ 실행하여 鄉政府를 건설하는데 관한 통지’를 내어 인민공사가 갖는 정치행정기능을 신설한 행정부에 이관하도록 했다. 행정부는 198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9만 2천개가 설립되었다.¹⁷⁾ 그리고 인민공사는 단순히 경제조직으로 남든지 아니면 農工商聯合公司로 모양을 바꾸었다.

15) 立花文平,『新中國はどこへ行く』時事通信社, 1988, p. 173.

16) 「大躍進」政策의 실패후 1961-65년의 경제조정기에 劉少奇 등의 實權派는 「三自一包」 정책을 내세웠는데, 生產請負制는 기본적으로 이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三自」란 自留地, 自由市場, 損益의 自己責任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一包」란 각 戶마다 농업생산을 請負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資本主義復活과 연계가 되는 것이라고 하여 毛澤東에게 비판받았다. 文革中에 이 정책은 심한 비판을 받았다.

17) 1985년 6월, 5만6천의 人民公社는 9만2천의 鄉鎮人民政府에 이관되었으며, 그와 함께 82만의 村民委員會가 설치되었다(『人民日報』, 1985년 6월 5일).

人民公社(The People's Commune)에 대하여는 다음 문헌 참조바람.

Benedict Stavis, *People's Communes and Rural Development in China*, Rural Development Committe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Nov. 1974.
P. 42以下.

인민공사의 해체에 따라 1983년 시점에서 586만 3천의 生產隊에서 生產責任制를 도입했으며, 그것은 전국생산대의 99.5%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農業改革을 중심으로 6년간의 공업이나 기타에 대한 試驗的 改革實踐을 거쳐서 工業·都市改革에 착수했다.¹⁸⁾

도시의 공업면에 있어서의 개혁은 企業自主權의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企業自主權이란 獨立採算制, 國家徵稅制度(모든 수입을 上納하는 利潤上納制에서 納稅制로 바꾸는 것), 損益自己負擔制度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⁹⁾

1978년이래 企業自主權의 확대와 經營責任制를 실시하고, 1981년에는 국영기업의 80%와 국영상업의 35%가 생산계획, 상품판매, 이윤분배, 자금운용, 중견간부의 任免등의 자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 工場長責任制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자주권은 국영기업에서 각 레벨의 기업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報獎金制度도 도입되었다.²⁰⁾ 1982년 11월 趙紫陽은 국영기업의 이윤상납제를 납세제로 바꾸는 것을 지시하였고, 그것은 1983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농업생산과 농업의 수요향상에 대응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키는 流通部門, 商業部門의 개혁이 행하여졌다. 1979년이후 商業店舗數를 증가하고, 도시의 自由市場을 부활하고, 기업의 경영책임제를 장려했다. 이에따라 개인상업이 증가했으며 失業(得業)青年이 경영하는 각종생산·서비스업이 발전했다. 1986년말 현재 전국의 개인경영상업은 1,211만점(전전년비 30.3%증가)으로서 그 종업원은 1,846만명(전전년비 41.7%증가)에 달하고 있다. 전국의 국영상업의 종업원보다 350만명 많다.²¹⁾

1984년 10월의 第12期3中全會에서는 ‘經濟體制의 改革에 關한 決定’을 발표하여 都市經濟

18) 金潤換, 「中國의 四代現代化와 經濟改革」, (高大亞研), 『亞細亞研究』 3卷 2號, 1987. p. 278.

19) 우리들이 시찰한 北京의 한 鄉集團農場(四季鄉農場)에서는 生產物의 6割정도가 세금으로 납부되고 4割이 농민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영농이외에 각종부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부업으로 그런 그림, 각종 수예품, 도장등을 집단농장이 설치한 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고 있었다(1991. 2. 22).

20) 우리들이 시찰한 西安의 모 2급방직공장(대규모 국영공장)에서는 報獎金制度(프리미엄제도)가 도입되어, 우수작품(여공)에게는 장려금(성과급여) 지급과 특별휴가(15일정도)가 주어진다고 공장책임자가 설명하였다. 우수여공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었다(1991. 2. 23).

21) 北京, 西安, 上海, 杭州등의 현지시찰(1991. 2. 20~28)의 결과 확인된 것은 상업부문(유통관계)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私營은 비교적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국영상점(백화점 등)은 비ぬ울적인 관료적 태도가 점원들에게 보였다. 그것은 생산공장의 경우와는 대조적이었다.

北京의 어느 夜市場(露店商)에서는呼客까지 하면서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의價格·賃金·管理시스템의 전반에 걸친 개혁을 밝혔다. 그 골자는 합리적인 가격체계의 확립, 행정과 기업의 職責分離, 價值法則을 활용한 계획체계의 수립등에 의해서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여 근대화의 실현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었다.

中國經濟는 그때까지의 소련형방식을 탈피하여 資本主義的 手法을 가미하여 새로운 中國的 社會主義經濟의 건설을 향해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것이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생산의 증산, 소득의 증가등에 있어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으나 문제점도 적지않다. 경제개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면 ① 소득격차의 확대 ② 환경오염, ③ 재정난, ④ 인플레이션, ⑤ 외화사정의 악화, ⑥ 경제범죄의 증가등을 지적 할 수 있다.²²⁾

이들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격차의 확대이다. 그 격차는 지역간에 있어서도 개인간에 있어서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河北(北京, 天津포함), 山東, 浙江(上海포함), 江蘇, 福建, 遼寧省과 같은 연해지역의 개방도시와 티벳, 青海, 雲南, 寧夏, 貴州, 陝西등의 오지는 소득의 차가 심하다.

1985년 9월에 개최된 中國共產黨 全國대표회의에서 陳雲은 그간의 경제개혁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즉 농촌에 있어서의 生產責任制(請負制)에 의해서 농업 생산의 발전, 농민수입의 증가, 생활개선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萬元戶’가 실상 이상으로 선전되어 그 수가 소수라는 점이 은폐되어 있고, 농민이 식량생산에 의욕을 느끼고 있지 않는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민은 ‘工業이나 商業’을 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식량생산으로는 수입이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때문에 농사는 물론 양돈, 야채 재배까지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는 ‘농업이 없으면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식량이 없으면 즉 혼란이 온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경제개혁에 따른 제반 부작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社會主義 經濟는 역시 ‘計劃經濟를 主로 하고, 市場調節을 從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黨風의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점에서의 矛盾은 黨의 지도적 간부층이 권력을 私物化 하고 私利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 앞에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이든지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고하에서 투기와 사기, 貧汚, 賂物供與, 不法蓄財등의 부정부패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慨탄하고 있다.²³⁾

22) 1982~85年末 까지의 경제범죄자를 보면, 全國各級 人民法院에서 貧汚, 削減수수, 密輸, 機械空賣買, 詐欺, 公共資產竊盜 등 合計 18만3000건이 심리되었고, 22만400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23) 池田誠외, 『圖說 中國近現代史』, 法律文化社, 1988, P. 210.

이 말을 이어받아 李先念은 경제건설과 체제개혁의 촉진에 의해서 思想政治工作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保守派 陳雲이나 李先念의 비판에서 보이듯이 많은 문제점을 内包하면서도 경제개혁은 農, 工, 商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능률과 향상을 가져다 준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 실권하에서 胡耀邦, 趙紫陽으로 이어지는 경제개혁파에 의해 경제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온 것이다. 경제체제 개혁은 소위 自給, 半自給的 社會를 社會主義에서의 ‘計劃的 商品經濟’의 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수준은 후진국저위수준(1985년, 1인당 GNP 310달러(開途國 평균은 610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금세기말까지 1인당 GNP 800달러를 목표로하고, 2200년에는 中進國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開放政策

① 經濟特區

對外 開放政策은 華國鋒 정권하에서 개시되었으며, 1977~87년에는 ‘洋躍進’이라고 비판 받을 정도로 西方先進國으로부터 資本·設備·技術이 도입되었다.²⁴⁾

文革末期의 1976년에는 134억 달러였던 수출입액이 1982년에는 393억 달러로 3배 증가하였다. 主要 貿易相對國은 일본, 홍콩, 미국, 서독, 캐나다등 서방측이 압도적이며 소련등 共產圈諸國과의 무역은 1983년 7%에 지나지 않았다.

대외개방정책은 華國鋒時代부터 시작은 되었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등소평의 지배시대에 들어서이다.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외자의 도입, 선진기술의 도입, 대외무역관계의 확대, 대외경제원조의 증대, 經濟特區의 설치 등의 추진에 의해서 1980년대 전반기의 중국경제는 급속적으로 資本主義 經濟市場과의 결합을 강화해 갔다.

1986년 말까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66억 달러, 이를 포함한 對外債務額은 206억 달러

24) 尹營子 譯(洪 勝彥 著), 『鄧小平時代의 中國經濟』, 서울, 比峰出版社, 1987. P. 19.

우리들이 시찰한 北京, 西安, 上海 등지에서는 日製각종 자동차가 많이 눈에 띄었고, 西安에서 시찰한 국영방직공장(제2급의 대규모공장)에서도 방직기는 모두 日製였다.

로서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높아졌다.

대외 개방정책 중 가장 유명한 것은 經濟特區의 설치이며, 그것은 1979년 4월 鄧小平이 제안한 것이었다.²⁵⁾ 동년 7월에 深圳, 珠海, 汕頭, 廈門의 4지구가 經濟特區로 지정 되었다. 당초에는 輸出特區라고 하였으나 1980년 5월에 經濟特區라고 정식으로 명명하였다.²⁶⁾

경제특구 설치의 주목적은 외자를 도입하여 수출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있으며 특구내에서는 合營企業이나 外資單獨企業의 설치가 허가되며, 세금등에 있어서 우대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특구내의 경제활동은 市場調節이 主가 되며, 計劃指導가 主가 되는 中國內地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資本主義 市場經濟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경제특구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경제특구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1년 부터이다. 1984년 말에는 이미 4,700 건의 외국과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투자액도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²⁷⁾

② 沿海地域의 開放

1984년 1월~2월의 深圳, 珠海, 廈門의 세 經濟特區의 시찰에서 北京에 돌아온 鄧小平은 대외개방의 추진을 다시 주장했다. 등소평의 주장에 호응하여 1984년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黨中央書記局, 國務院 주체의 일부 沿海都市에 관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좌담회에서는 大連, 秦皇島, 天津, 煙臺, 青島, 連雲港, 南道,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湛江, 北海의 14개 도시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 외자,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장래에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구역에 經濟技術 開發區를 설치할 것 등의 제안이 있었다. 동년 가을 14개 연해도시의 대외개방이 결정되었으며, 大連과 天津에서는 經濟技術開發區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5년 1월에는 長江(揚子江), 珠江, 閩南(福建省 南部)의 3엘타 지구를 연해 經濟 開放 구역으로 할 것이 제안되었다. 遼東半島, 山東半島의 개방도 검토되었다.

대외 개방은 1986년 4월 발표의 제7차 5개년 계획(1986~90년)에서 확대될 것이 요청되

25) 「瞭望」, 1984年 24期 論文 참조.

26) 中空經濟特區의 沿革 및 特質에 관해서는 張榮豐, 『中共經濟特區之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院, 1983. PP. 3~24를 참조바람.

27) 4特區의 1984년의 工農業生產額은 33억 4천만元으로서 전년비 63%증가했다. 특히 香港에 인접하고 있는 深圳經濟特區에는 香港을 비롯하여 美國, 日本, 英國 등 50여개국이 진출하여 투자기업의 90%이상이 이 윤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大公報」 1985년 3월 18일)

고 있다. 동 계획에서는 中國全土를 東部, 中部, 西部의 3지대로 나누고 동부지대에서는 ‘上海, 天津, 大連 등의 구공업 도시를 중점적으로 개조하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外資를 이용하여, 선진기술과 中核設備를 도입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²⁸⁾

동부지대에 포함되는 4 經濟特區, 14沿海開放都市 및 3經濟開放區는 ‘대외무역의 기지, 전국의 고급기술·관리자를 양성하는 기지, 전국적인 신기술의 전달과 컨설팅, 정보제공을 위한 기지’라고 정의되었다. 개방정책은 매년 확대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개방정책은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서 1988년 10월 하순 중국은 과열된 경제를 통제한다는 이유로 외국회사와의 합영사업의 일부를 취소한 바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 근거하여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4개전지’(科學, 民主, 創造, 獨立)는 遠心力과 求心力의 關係에 있다.²⁹⁾고 하여 이들의 관계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의 개방정책은 국내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과의 교역, 기업합영 등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3) 開放下의 改革派와 保守派의 對立

1978년 12월의 3中全會이후 非文革派의 연합체제(鄧小平, 陳雲 體制라고 한다)는 중국경제의 후진성 극복이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여 왔다. 즉,主流를 이루는 개혁파의 鄧小平, 胡耀邦, 趙紫陽과 보수파의 陳雲政治局商務委員 및 姚依林副首相 그 중간파의 3세력이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鄧小平時代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추진하여온 것이다.

이들은 대외경제개혁과 대외경제개방을 軸으로 하여 소위 폐쇄적체제하의 사회주의에서 개방체제하의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개방체제로의 전환으로 「부르조아思想」의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정치지도상의 동요 내지 갈등이 나타났다. 예컨대 1978-79년의 ‘北京의 봄’(민주의 봄)의 금지, 1981년의 白樺의 시나리오 ‘苦戀’ 비판, 1983년의 精神污染批判, 그리고 1987년의 ‘부르조아

28) 中野謙二, 前揭書, P. 104.

29) 蔡熙駿, 「中國開放政策의 背景과 特徵」, 『季刊 中國』, 檡國大學校 附設 中國研究所, 1988年 12月, (通卷 제 11호), P. 29.

자유화³⁰⁾ 비판 등이 정치지도상의 동요와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이다.

그러나 1978~79년에 제기된 '4개의 기본원칙'의 테두리내에서 정치적 지도는 지켜져온 것이다. 그것은 등소평의 기본노선이 항상 지켜져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등소평체제내에서의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을 살펴보면 1982년의 十二全大會후의 政治力學은 中共中央內部의 諸勢力間의 모순에 의해서 여러가지 국면을 놓게 되었다. 1983년 3월경부터 '人道主義와 疎外'를 테마로 한 토론에 대해 부수파그룹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동년 10월의 第12期 2中全會로 부터 '精神污染' 反對運動이 보수파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精神污染反對運動은 다음해의 1984년초에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정신오염반대운동으로 말미암아 농촌개혁의 기동이 되어 있는 생산책임제가 동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³¹⁾ 생산책임제는 개혁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즉 호요방등 개혁파가 보수파를 저지한 것이다.

1984년 10월의 13期3中全會에서는 '經濟體制改革에 對한 決定'이 채택되었는데 이 결정은 농촌에서 시작된 경제체제 개혁이 이미 대규모의 商品經濟를 탄생 시켰고, 또 농촌과 도시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가운데서 도시에 중점을 두는 계획이 중요시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이 제시된 것은 그 개혁을 개혁파 그룹이 강력히 주도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985년 9월의 中國共產黨 戰局代表會議에서는 '國民經濟·社會發展第7次5個年改革의 책정'이 주요의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中共중앙의 제안과 설명(趙紫陽=改革派)이 있었으나 陳雲(保守派)이 이를 비판하였다.³²⁾ 즉 진운은 개혁추진에 따른 피해의 확대와 농업생산 경시의 경제운영이라고 하여 비판하였다. 이리하여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 경제개

30) 1987년 2월 2일자 「인민일보」는 '보르조아 자유화 반대투쟁'을 '당내에 한정하고' 경제개혁, 농촌개혁, 과학기술연구,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 등의 영역에 확대하지 않도록 주장하고 있다. 5월 13일의 趙紫陽 보고는 '보르조아 자유화 반대'는 「'정치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사상영역에서 행하고 경제개혁정책과 관련시키지 않을 것」을 재확인 하고 있다.

31) 矢吹普,『中國のペレスト로イカ--民主改革の旗手たち』蒼蒼社, 1988, P. 29.

32) 중국의 농민중에는 「一万元戶」, 「10万元戶」, 심지어는 「100万元戶」와 같은 富農도 탄생했다고 北京大學 교수로부터 들었으나(2월 22일), 중국의 농민은 대부분 전가족이 「5평」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농민 1인당 年收도 200~400元(月收로는 16~32元)이 농민의 50%(1985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矢吹普, 『圖說, 中國의 經濟水準』蒼蒼社, 1987, P. 59)

혁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정치무대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1985년 9월의 全國代表會議 이후 이 모순은 축적되어 약 1년반 후의 1987년 1월에는 드디어 胡耀邦總書記(改革派)의 辭任³³⁾이라는 사퇴까지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요방의 후임으로 조자양이 총서기로 임명됨으로써 개혁파의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 나갔다. 그후 1989년 6월 호요방의 사망을 추도하기 위하여 천안문광장에 집결한 학생데모대에 대한 발포와 검거선풍으로 개혁파의 조자양도 실각하게 되었다. 호요방의 사망과 조자양의 실각³⁴⁾에도 불구하고, 즉 보수 강경파의 현정권하에서도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은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49년의 中華人民共和國의 성립이래 오늘날까지 급진파 온건, 개혁파 보수 등의 대립이 되풀이 되면서 중국지도부의 권력관계가 유지되어온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근대화정책을 둘러싼 혁신파와 보수파의 대립, 혁신파 속에서의 급진파와 완진파의 대립, 보수파속에서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되풀이 되어왔다. 文化大革命은 모택동이 유소기등의 주자파(실권파)를 몰아내기 위한 반격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래에는 개혁파의 胡耀邦이 보수파의 陳雲의 비판을 받아 총서기직을 사임했다. 이외에도 華國鋒이 四人幫을 몰아내고, 鄧小平이 華國鋒을 무력화시키는등 당지도부내의 권력쟁탈전이 되풀이 되어 왔다. 중국의 당지도부의 권력투쟁은 5-6년에 한번씩 순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8회 黨大會에서 선출된 劉少奇, 제9회 黨大會에서 선출된 林彪, 제10회 黨大會에서 선출된 四人幫, 제11회 黨大會에서 선출된 華國鋒 제12회 黨大會에서 선출된 胡耀邦등 모두가 권력투쟁에 의해 그 자리를 물려나고 있다.³⁵⁾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 따라 정치개혁도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社會主義體制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어 그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李洪林(福建社會科學院

33) 1987년 1월 16일부로 胡耀邦은 總書記職을 사임했다. 해임(사임)당한 이유는 집단지도체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左」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右」에 반대하지 않았다' '브루조아 자유주의가 확대하고 있는데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1983년 정신오염반대운동에 반대하여 중지시켰다' '1983년 아래의 整黨工作의 실패의 원인은 胡耀邦의 右傾指導에 있었다' 등의 이유가 사임 이유인 것이다. 그 후 밝혀진 이유의 하나는 '고소비, 소비과열'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경제정책을 용인해 왔다는 것이다.

34) 1986년에 출판된 다음 書籍에는 '鄧小平時代는 아마도 수년내, 길어도 10년이내에 막을 내린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적중할지 어떨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宇野重昭외, 『現代中國の歴史 - 1949-1985』, 有斐閣, 1986, P. 431)

35) 矢吹普, 『中國のペレストロイカ - 民主改革の旗手たち』, 蒼蒼社, 1988, P. 34. 더욱, 陳雲, 鄧小平等의 中國 최고실력자들은 80세를 넘는 제1세 혁명가들이 많다. 제2세, 제3세 시대에는 주도권 다툼의 양산도 달라질 것이다.

院長)은 「現代化와 民主主義」라는 논문에서 ‘現代化된 社會主義 強國은 고도로 발달한 民主生活을 가져야 한다’고 논하고 있으며,³⁶⁾ 또한 그는 다른 보고서에서 ‘黨組織은 政府가 아니며 國家의 權力機關도 아니다. 黨이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고쳐야 한다.’³⁷⁾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中國도 經濟改革에 따라 政治改革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1987년 가을의 제13회 黨大會에 있어서 ‘政治體制改革을 行하지 않으면 經濟體制改革은 성공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①黨政의 分離 ② 權限의 下放 ③ 政府工作機構의 改革 ④ 幹部人事制度의 改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³⁸⁾

그러나 그후 아무런 개혁도 보이지 않은 채 1989년 6월의 천안문광장에서 있었던 학생데모등의 유혈진압에서 보이듯이 정치개혁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3. 六·四 天安門事件

六·四天安門事件은 「89년 五·四運動」 또는 「新五·四運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89년 五·四運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래 최대규모로 民衆이 참가한 民主化大衆運動이며, 그것은 지식인, 학생들이 주동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호응한 「秩序있는 밑으로부터의 民主化運動」 이었다고 한다.³⁹⁾ 그들이 주장하는 요구는 「言論・集會등의 自由를 保障하는 憲法雍護」, 「人權雍護」, 「自主的으로 選出된 代表 組織의 社會的認知」 등이었으며, 요구실현의 주요 수단으로써 「평화적 시위」, 「철저한 說得」, 「헝가 스트라이크」(hunger strike)와 같은 「非暴力主義」를 취한것은 中國建國史上 특기할수 있는 일이었다.⁴⁰⁾

「89년 五·四運動」(民主化要求運動)은 폭력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그러나 중국민중의 政治體制에 대한 불신은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社會主義, 黨의 指導 및 마르크스·

36) 李洪林, 「現代化와 民主主義」(『世界經濟導報』6월 2일); 矢吹普, 『チヤイナ・ウォツチングー經濟改革から—政治改革へ—』, 蒼蒼社, 1986年 10月, p. 105.

37) 上同, p. 106.

38) 矢吹普編, 『中國のペストロイカ—「民主改革の旗手たち」—』, 前掲書, p. 33.

39) 野村浩一外, 『現代中國の政治世界』, (岩波講座, 現代中國, 第1卷), 岩波書店, 1988년, p. 214.

40) 上同, p. 214.

례닌주의·毛澤東思想에 대한 不信—이것을 三信危機라고 한다—특히, 경제적 부정이나 관료주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당에 대한 불만이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과 병행하여 가속적으로 民衆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으며,⁴¹⁾ 이러한 不信은 제거되지 못하고 民衆 속에擴大되고 있다고 한다.

民衆속에 침투하고 있는 三信危機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강경파 江澤民, 李鵬, 楊尚昆 등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강경파 현지도부는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조심스럽게 계속 유지함으로서 不信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六·四天安門事件발생후 한때 中國은 北의 內陸地帶와 南의 華南地帶로 나누어 소위 지역별 정경분리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1990年 3월 20일의 第7期全大會에서 李鵬수상은 정치활동보고에서 ‘政治思想面에서는 社會主義 保守路線이 회귀하며 國民經濟나 外交에 있어서는 改革·開放을 지향한다’고 말하여 지역별 정경분리를 시사하였다.(1990년 3월 20일부 夕刊 中國各新聞)

北의 內陸部에서는 「思想點檢」을 行하는 등 社會主義體制의 強化政策이 취하여지고 있으나 南의 廣東省, 福建省을 중심으로한 華南經濟圈一帶에서는 市場經濟메카니즘의 資本主義의 經濟雰圍氣가 종전대로 유지되었다고 한다.⁴²⁾ 1991년 2월말 현재 개혁과 개방정책은 중국의 전국에 걸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中國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六·四天安門事件과 같은 정변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⁴³⁾

41) 上同, p. 216.

42) 「文藝春秋」, 東京, 1990年 5月號, pp. 159–160 참조.

43) 다만 現實的으로 나타난 경제의 過熱現象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정도 調整政策이 實施될 것이다. 즉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의 양진, 투자 과열, 부정부패, 경제질서의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通貨 및 財政 緊縮, 投資優先 順位의 調整, 비생산성 분야의 생산억제, 貿易去來에 대한 中央統制強化 등의 조치가 계속 취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中共中央關於進一步治理整頓和深化改革的決定”(1989년 11월 中共黨13期 5中全會 決定), 「人民日報」, 1990. 1. 16).

IV. 韓·中 經濟 交 流

1. 韓·中 經濟交流의 추이

中國과 韓國은 1950년의 韓國動亂이래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 즉 中國은 대만과, 韓國은 北韓과 분리된 分斷國家로서 적대관계에 있다. 또한 中國은 社會主義를, 韩國은 自由主義라는 상반된 體制를 고수해 왔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中國은 거의 외부와 단절된 채 自力更生을 원칙으로하는 經濟開發戰略을 구사해온 반면 韩國은 輸出主導의 經濟政策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다.

韓·中間의 經濟交流는 中國자체의 정책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中國에서는 1978년 12월의 中共中央 第11期3中全會에서 改革과 開放政策의 추진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鄧小平을 중심으로한 실용주의세력의 등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中國의 현대화정책을 추구하려는 실용주의자들의 등장이후 中國과 韩國의 상반된 體制에 의한 적대관계는 中國의 對西方和解와 體制改革推進을 통해서, 分斷國間의 관계는 1國2體制政策 내지 政經分離政策에 의해서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다.⁴⁴⁾

韓國에서는 1988년에 「北方政策」을 친명한 소위 「7·7宣言」 이후 未修交·共產國과의 교류 특히 經濟交流가 적극 권장되어 왔다.⁴⁵⁾ 당시 집권당의 盧泰愚大統領候補가 貿易代表部 交換設置 및 中國訪問등을 골자로 한 兩國關係개선방안을 제시한후 韩中關係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 했으며, 갑자기 「中國붐」을 맞은듯한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무렵 한국정부는 中國과의 直交易時代에 대비하여 韩國의 西海岸地域과 中國의 黃海沿岸을 하나의 經濟圈으로 파악하려는 「西海岸開發構想」을 발표하였다. 韩國의 「西海岸開發構想」을 中國에서는 「黃海計劃」이라고 부르고 있다.

44) 中國은 1970年代 후반까지만해도 소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反霸權外交政策을 구사하여 왔으나 1980年代初부터는 自主獨立 外交路線에 입각하여 實利外交를 견지하고 있다. 中國이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하여 自由世界와의 經濟交流를 시작한 것은 實利外交路線에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韓光洙, 「韓·中共經濟關係改善論議의 再照明」, 『季刊 共產圈經濟』(產業研究所), 1988年 6월 p. 3.

45) 東亞日報社, 「東亞年鑑」, 1989年, p. 147.

韓國의 「西海岸開發構想」에 대한 中國의 호의적 대응은 1988년 4월초 중국국무원이 「海岸開放區擴大」를 결정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즉 韓國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中國海岸의 經濟開放區를 종전의 2배로 擴大키로 결정한 것이다.⁴⁶⁾

中國의 海岸開放措置는 기본적으로 中國자체의 開放化戰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만⁴⁷⁾ 韓國의 「西海岸開發構想」 발표와 中國의 「海岸開放區擴大」 조치가 같은 時期에 발표된 것은 兩國의 교역방향을 밝게 하고 있는 징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韓中間의 문화교류에 대하여 보면 1983년 5월의 中國民航機의 韓國 春川 부근의 不時着事件을 시발로하여, 1984년 4월 서울개최의 아시아 청소년 농구선수권대회의 中國代表參加, 1985년의 韓中兩國間의 國際學術會議, 國際스포츠行事 등을 매개로한 人的交流⁴⁸⁾ 1986년 서울개최의 아시아경기대회의 中國代表參加, 1988년의 서울올림픽의 中國代表參加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1990년에 北京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는 한국선수와 응원단 및 관광객이 대거 참가하였다.

한편 1988년 8~9월에는 山東省, 遼寧省, 吉林省등의 投資誘致團이 방한하여 각각 貿易사무소의 개설, 직항로 개설을 위한 합자회사설립등 經濟交流覺書를 大韓貿易振興公司와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차원에서의 兩國間의 協定形態의 公式關係 그리고 나아가서 外交關係의 樹立등은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 兩國間에 貿易事務所 開設이 실현되었다.

1989년의 六·四天安門事件(89년五·四運動)이후 中國社會主義保守強堅派인 江澤民, 李鵬, 楊尚昆등의 등장에 따라 中國의 經濟改革과 開放政策이 한때 억제되었으나 中國經濟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천안문사건과 같은 政策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폐쇄적인 政策을 취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은 다시 부활하여 조심스럽게 추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기업은 市場性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對中國投資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⁴⁹⁾

46) 이 확대조치는 총면적 32만 km²에 1億6千萬명의 人口가 거주하는 海岸地域 284개 주요 市·縣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7) 中國은 1980年 經濟特區의 설치이래, 1984年 14個海岸經濟開放區설치, 1988年 海岸開放區擴大措置등을 단계적으로 취해왔다.

48) 東亞日報社, 「東亞年鑑」, 1986年 p. 66.

49) 中央日報, 1990年 2月 12日.

90년의 北京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韓國과 中國의 關係개선폭이 확대되어 業界의 對中國投資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고조된 것도 사실이다.

1989년 한해동안에 29件의 對中國投資許可가 이루어진데 이어 1990년 1~4분기중에 9件의 投資가 이루어져 89년부터 90년 4월 6일 현재까지 對中國投資許可는 모두 38件에 이르고 있다.⁵⁰⁾

한편 90년에 들어서 美日의 中國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상 해제되었고, 世界銀行도 90년 2월 8일 中國에 대해 34만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등 六·四天安門事件이후 경직되었던 對中投資規模가 완화되고 있어 國內業界의 對中國진출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⁵¹⁾

貿易進興公司등 관계기관은 北京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韓中間 현안중 하나인 貿易進興公司事務所設置, 直航路問題등도 거의 타결되었다.

國際民間經濟協議會(IPECK)는 韓國企業의 對中投資가 초창기에는 北京등 내륙지방, 中國중부지방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投資지역이 점차 북상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가까운 黑龍江省, 山東省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이 업계의 投資適地로 각광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⁵²⁾

中國과 韓國은 兩國 다 北韓을 크게 의식하면서도 정경분리를 토대로한 實利外交를 구사하는 가운데, 韓國은 國交正常化를 포함하는 政治的 接近과 함께 公開的 次元에서 兩國關係를 다루고자하고 있으나, 中國은 非政治的 接觸에 제한하면서 非公式的 實務次元에서 經濟協力에 촉점을 맞추고 있다.⁵³⁾

이와같이 韓中兩國의 외교방침은 기본적으로 상이하지만 실리면에서 兩國의 경제교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0) 東亞日報, 1990年 4月 6日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와 韓國銀行의 發表에 의한 것임).

51) 中央日報, 1990年 2月 12일.

52) 上同.

53) 韓光洙, 前揭, P. 13.

2. 韓·中經濟交流現況

1) 貿易現況

한국과 중국사이의 무역은 1970년대 말 중국의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이 실시되기 시작함에 따라 주로 香港을 통한 間接交易 方式으로 전개되었다.

1979년에 韓·中交易 규모는 1,900만 달러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88년에는 왕복 31억 달러 규모로 크게伸張되었다. 특히 1988년에는 전년의 16억 7,900만 달러에서 30억 8,700만 달러로 무려 83.9%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의 5번째 중요 교역국가로 浮上하게 되었으며,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교역은 總交易의 약 3%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처럼 활발한 增加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 이후 對中國輸入은 연도별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對中國輸出은 연도별로 확대와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즉, 對中國輸出은 1986년에 전년比 1,500만 달러의 감소를 보였으며, 1989년에도 역시 전년보다 輸出규모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表 1 참조〉

〈表 1〉 韓國의 對中國交易推移

(단위: 백만 달러)

年 度	總 貿 易	輸 出	輸 入	收 支
1979	19	4	15	- 11
1980	180	115	73	42
1981	353	205	148	57
1982	129	48	81	- 33
1983	134	51	83	- 32
1984	462	229	233	- 4
1985	1,290	683	607	76
1986	1,283	668	615	53
1987	1,486	813	866	- 53
1988	3,196	1,700	1,387	422
1989(1~10)	2,626	1,218	1,409	- 191

〈資料 : KOTRA 實查 및 商工部〉

文化革命이 후의 中國과 韓中經濟交流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交易 商品構造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輸出 상품은 電子, 電氣, 化學 製品, 機械類, 纖維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의 輸入은 纖維, 農水產品, 鐳山品, 鐵鋼金屬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表 2 참조〉

〈表 2〉 韓國의 對中國 輸出入 構造

(단위 : 천달러, %)

	1 9 8 7		1 9 8 8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計	813,172 (100)	865,972 (100)	1,700,213 (100)	1,386,693 (100)
농 수 산 품	8,728 (1.1)	252,867 (29.2)	7,241 (0.4)	385,087 (27.8)
광 산 품	19,620 (2.4)	124,055 (14.3)	15,533 (0.9)	222,364 (16.0)
화 학 제 품	179,546 (22.1)	55,507 (6.4)	316,243 (18.6)	76,125 (5.5)
섬 유	181,162 (22.3)	374,100 (43.2)	194,893 (11.5)	468,043 (33.8)
철 강 · 금 속	173,682 (21.4)	48,059 (5.5)	82,676 (4.9)	198,891 (14.3)
기 계	45,871 (5.6)	482 (0.1)	279,184 (16.4)	2,728 (0.2)
전 자 · 전 기	168,415 (20.7)	323 (0.0)	782,686 (46.0)	1,143 (0.1)
잡 재 품	36,148 (4.4)	10,579 (1.2)	20,359 (1.2)	32,312 (2.3)

〈資料 : 商工部〉

주 : ()는 構成比

품목별로는 컬러 TV, VTR, 냉장고 및 냉동기기, 전열기,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직물, 열전자관·냉음극관, 비료, 紙 및 板紙, 鐵鋼의 봉 등이 주로 輸出 되었다. 한편 輸入은 石炭, 대두박, 原綿, 옥수수 등 곡물, 생사, 알류미늄 괴 등이 주요품목이었다.

2) 投資現況

한국의 對중국투자는 대체로 '86 아시안 게임을 전후하여 양국간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產 業 研 究

힘입어 투자상담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아직도 그 실적은 미미한 형편이다.

1989년말 기준으로 25건이 한국은행의 투자허가를 획득 하였으며 이중 15건이 未操業狀態이다.〈表 3 참조〉 투자금액은 累計 약 2,600만 달러이며 業種別로는 봉제, 텐트제조, 수산업, 음식업, 냉장고 생산 등 경공업, 전자공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다양하다.

투자 지역은 經濟特區와 北京 및 沿海 都市가 대부분이며 투자의 초기단계라는 점을 반영하여 2/3 以上이 1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이다. 투자 방식은 대부분 합자 형태이나 몇몇 기업은 100% 전액 출자인 독자 형태로도 진출하고 있다.

〈表 3〉 對 中國 投資 現況(1989年末)

(단위 : 천달러, %)

투 자 자	소 재 지	허 가 일	업 종	허 가 금 용	韓國투 자비율	韓國 투자액
1. 현지법인 상태						
信一피혁	遼寧省	89.12.30	피혁의류제조	850	100	—
信湊산업	"	"	장갑가방 "	720	60	—
한미부라쉬	"	89.11.29	화장용솔 "	200	50	—
호삼유통	吉林省	"	옥수수가공품	1,700	50	—
東亞제약	山東省	89.11. 8	유리병 제조	1,000	50	1,000
大陸제약	北京市	89.10.16	날염 "	270	90	—
韓國토프론	山東省	89. 9. 2	스피커 "	450	100	450
정이산업	秦皇島市	89. 7. 7	조명등 "	60	60	—
큐티洋行	天津市	89. 5.19	봉제완구 "	320	80	—
유공	深圳市	"	태양전지 "	1,000	20	1,000
성방산업	北京市	89. 5.17	기념품 "	450	50	450
金星社	珠海市	"	컬러TV "	2,300	46	—
三養食品	青島市	88.12.29	라면 "	3,000	50	3,000
進雄	廈門市	88.11.28	텐트 "	400	100	400

2. 현지법인 子會社 형태

眞露日本법인	北京市	89.11.23	음식점(한식)	1,250	50	-
正韓수산홍콩	廣東省	89. 6.24	수 산 업	2,100	100	2,100
帝元수산 "	"	89. 3. 4	"	1,000	100	81
럭키金星 "	北京市	89. 1.18	완구 제조	460	48	460
大榮어업 "	廣東省	88.11.28	수 산 업	740	100	740
不老인삼日本	龍井市	88.10.18	인삼제품제조	647	50	647
斗山산업 "	北京市	88. 1. 1	음식점(한식)	619	80	619
大宇전자홍콩	福州市	87. 8.26	냉장고 제조	6,034	48	6,034
韓斗수산 "	頭市	86.12.24	연안 어업	1,500	70	1,500

3. 현지공장 설립 형태

信 산업현지 법인	珠海市	89.10.31	장갑 제조업	60	30	-
新太陽 Int.	深圳市	89. 6.29	완구 "	75	33.3	75
大和현지법인	"	88.10. 5	가발 "	250	50	250
朝鮮무역 "	"	86. 2. 8	무역 (완구)	250	100	250
한스물산 "	廣州市	85. 9. 6	완구 제조업	144	45	144

資料 ; 「東亞日報」(1990년 1월 5일), 韓國銀行 발표.

3. 韓國의 對應策

한국의 對중국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對應 方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자본 · 기술이 體化된 對중국 경제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교류는 1970년대 말 아래의 단순상품거래에서 이제는 直接投資 형태의 경제교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말 현재 약 25件의 對중국 투자가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 미국 등 對중국 진출 先發國에 비하면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產 業 研 究

특히 한국의 對中國 輸出 상품들의 競爭力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의 정책변화에 민감한 변동을 겪게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資本·技術協力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진다. 이때 對中國투자 방법으로는 借款, 合資, 合營, 플랜트 延拂輸出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產業構造調整과 연계된 對中國투자가 요망된다. 한국은 현재 빠른 속도의 산업구조 조정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989-90년의 經營收支 黑字幅의減少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債權國으로 전환되면 해외투자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셋째,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構築해야 한다. 물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기반은 外交關係의樹立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의 단기간내 관철에는 南北韓問題, 臺灣問題등 쉽지않는 장애가 가로놓여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소련과의 경우처럼 領事關係의 설정과 이어서 修交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중국의 經濟技術開發區에 한국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1984년이래 沿岸開放都市를 중심으로 經濟技術開發區를 설치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는 稅制, 金融, 原資材 供給, 出入國節次등에서 우대조치를 취해 주고 있다. 이들 지역은 背後地에 비교적 양호한 공업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沿岸地域에 위치하고 있어 필요 原資材의 国內외로부터의 조달 및 輸出品의 輸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東北 3省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와 근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소수민족으로서의 朝鮮族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국에 대한 정보망의 확충과 체계적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협력대상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깊은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 연구와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으로서의 分析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 제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인의 行動類型, 思考方式에 대한 체득이 야말로 협력증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V. 要約 및 結言

1965년 11월에 시작된 文化革命은 劉少奇등의 走資派로부터 毛澤東이 실추된 권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이었다. 즉 그것은 實權派(주자파) 타도를 위한 모택동의 권력투쟁이었던 것이다.

문화혁명의 격동중에서 많은 共產黨간부가 숙청되고 정규의 행정기관이나 공산당 조직도 마비되었다. 또 문화혁명으로 생명을 잃은 자도 많았다.

文革중에는 鄧小平이, 周恩來의 도움으로 복귀했으나(74년 10월), 주은래의 사망과 사망후의 추도식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天安門事件으로 다시 추방되었다. 그후 한때 江青, 王洪文의 四人幫이 실권을 장악했으나 모택동의 사망후 華國鋒이 모택동의 후계자로 부상했다. 화국봉은 四人幫을 추방했으며, 그후 얼마 안가서 鄧小平이 재복귀(1977년 7월)하여 실권을 장악했다.

鄧小平은 人民公社를 폐지하고 經濟改革과 開放政策을 추진하였다. 인민공사의 폐지에 따라 농가에서는 生產責任制(請負制)가 실시되고 自留地가 인정되었으며, 부업이 장려되고 自由市場制가 부활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또한 都市·工業에서도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979년 이후 등소평을 중심으로한 實用主義者の 등장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경제개혁이,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1979~89년의 10년간에 농·공·상업등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이 실현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4개의 經濟特區와 14개의 開放都市 및 3經濟開放區가 설치되어 自由主義世界와의 交易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경제개혁과 개방에 따라 汚職(貧汚), 賂物贈與, 기타 不正蓄財등에 의한 經濟犯罪의 급증, 社會風紀의 문란, 인플레이션, 失業의 대량발생등이 나타나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中國의 近代化는 調整과 改革을 되풀이 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中華人民共和國의 건설이래 近代化政策을 둘러싼 革新派와 保守派의 대립, 革新派 속에서의 急進派와 緩進派의 대립이 되풀이 되어왔다.

등소평집권 이후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鄧小平, 胡耀邦, 趙紫陽등의 소위 개혁파와 개혁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균형을 중시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陳雲(政治局常務委員), 姚依林(부수상)등의 보수파의 대립이 되풀이 되어 왔다. 대체로 개혁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왔으나 1989년 6월의 天安門事件(89년 五·四運動)과 趙紫陽의 실각에 따라 江澤民, 李鵬, 楊尚昆등의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六·四天安門事件은 「89년 五·四運動」이라고 한다. 그것은 지식인, 학생들이 주동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호응한 「秩序있는 밑으로부터의 民主化運動」이었다. 그들의 「非暴力主義」는 폭력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中國民衆의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은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속에 침투하고 있는 三信危機(社會主義, 黨의指導 및 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思想에 대한不信)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강경파 江澤民, 李鵬, 楊尚昆 등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서 不信의 제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中華人民共和國의 성립이후 대체로 5, 6년마다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들어 ① 1955년 高岡, 饒漱石 事件, ② 1959년의 彭德懷 事件, ③ 1966년의 劉少奇, 鄧小平事件, ④ 1971년의 林彪事件, ⑤ 1976년의 四人幫事件, ⑥ 1981년의 華國鋒事件, ⑦ 1987년의 胡耀邦辭任, ⑧ 1989년의 趙紫陽사임과 天安門事件등은 대략 5, 6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中華人民共和國의 40년간은 中共中央의 권력쟁탈전의 역사이며, 주도권 타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中華人民共和國成立 이후의 韓中間의 경제교류에 관하여 보면 中國과 韓國은 1950년의 韓國동란이래 상반되는 體制下에서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70년대말 中國에서 鄧小平을 중심으로하는 실용주의세력이 등장하여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이후 양국의 적대관계는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고, 경제교류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中國은 거의 외부와 단절된체 自力更生을 원칙으로 하는 經濟開發戰略을 구사해 온 반면, 韓國은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中國은 1978년 12월의 第11期3中全會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의 결정이후, 자력갱생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輸出指向的 戰略으로 전환하여 韓國의 경험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말 홍콩등을 경유하는 간접무역형태로 시작된 韓國과 中國의 교역은 1979년에는

1,900만 달러수준에 달하였고 1989년에는 31억달러 이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갔다. 또한 韓國의 中國에 대한 투자도 이미 10件 이상이 中國현지에서 조업중에 있다.

1988년에는 韓國에서 「西海岸開發構想」(黃海計劃)을 발표하였고, 동년 4월에는 中國에서 도 「海岸開放區擴大」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兩國은 모두 앞으로의 교역확대 나아가서는 직교역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1989년의 六·四天安門事件이후 中國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이 한때 억제되었으나 韓國 기업의 對中國投資規模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中國經濟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天安門事件(89년五·四運動)과 같은 정변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폐쇄적인 정책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韓國과 中國은 兩國 모두 北韓을 크게 의식하면서도 정경분리를 토대로한 실리외교를 구사하는 가운데, 韓國은 국교정상화를 포함하는 정치적 접근과 함께 公式的, 公開的 次元에서 兩國關係를 다루고자하고 있으나, 中國은 非政治的 접촉에 제한하면서 非公式的 實務次元에서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같이 韓中兩國의 외교방침은 기본적으로 相違하지만 실리면에서 兩國의 경제교류는 더욱 심화될것으로 전망된다.

對中國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자본·기술이 體化된 對中國 경제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산업구조조정과 연계된 對中國 투자가 요망된다. 세째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네째 중국의 經濟技術開發區에 한국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東北 3省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소수민족으로서 朝鮮族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하는 경제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역사, 제도, 문화는 물론 중국인의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 광범하고 체계적인 중국에 대한 연구와 정보망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中國은 지난 40여년간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생활수준은 후진국 하위수준(1985년 1인당 GNP 310달러, 개도국 평균은 610달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과, 국민생활과 생산력의 향상을 위해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도입 즉 시장경제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는 경제적 위기로 놓여져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文文獻〉

- 공기두 譯 (F. 르바르비에 外), 『中共 1949—1976』, 까치, 1984.
- 金壽鎮, “中共의 經濟管理 시스템에 관한 研究”, 慶熙大박사학위논문, 1982.
- 金龍國 譯 (레이온 H. 마이어 著), 『中國經濟』, 建國大學校出版部, 1984.
- 金潤煥, “中共의 4大現代化와 經濟改革”, 『亞細亞研究』, 3권 2호, 高大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 1987.
- 金泰弘, 『中華人民共和國의 經濟政策과 產業成長』, 韓國經濟新聞社, 1987.
- 木浦市, 木浦宣言 : 『西海岸時代의 開發과 木浦發展의 大轉換』, 1988.
- 閔斗基 譯, (체스타턴著) 『中國現代政治思想史』 知識產業社.
- 閔斗基, 『現代中國과 中國近代史』, 知識產業社.
- 朴俊弘, 『周恩來와 中共革命』, 太陽文化社, 1980.
- 產業研究院, 『中國 經濟特區에 관한 연구』, 1989.
- , 『韓·中 經濟交流 增進方案』 1988. 11.
- 金成勳·尹炳洙, “中國의 對外開放政策과 韓國企業의 進出方案에 관한 研究”, 中央大 中國研究所, 1989. 12.
- 尹榮子 譯 (浜勝彦 著), 『鄧小平時代의 中國經濟』, 比峰出版社, 1987.
- 李文奎 編譯, 『鄧小平 文選(1975—87), 上·下』, 인간사랑, 1989.
- 李延植, 『中國의 經濟發展과 西海岸 開發』, 仁荷大, 產業經濟研究所, 1988.
- 조영명, 『중국 현대사의 재조명』, 온누리, 1985.
- 中國研究所, 『中國』, 檀國大附設中國研究所, 1988.
- 中國研究所, 「中國產業年鑑」(1987年版), 電子時報社, 1987.
- 韓榮春外 共著, 『中共의 經濟構造』, 麗文閣, 1986.
- 韓光洙, 『韓·中共 經濟關係 改善論議의 再照明』, 『季刊 共產圈經濟』(產業研究院), 1988. 6.
- 韓南大 出版部, 『中國經濟의 對外開放과 西海岸時代』, 1988.

〈東洋文獻〉

- 鈴木俊 編,『中國史』,山川出版社,1987.
- 宇野重昭外,『現代中國の歴史, 1949-1985』有斐閣,1986.
- 中嶋嶺雄 編,『中國現代史』,有斐閣,1981.
- 中野謙二,『中國概論』,有斐閣,1986.
- 姫田光義外,『中國近現代史』(上巻),東京大學出版部,1987.
- _____,『中國近現代史』(下巻),東京大學出版部,1987.
- 小島晋治・丸山松幸,『中國近代史』,岩波新書,1988.
- 池田誠外,『圖說中國近現代史』,法律文化社,1988.
- 小林文男,『中國現代史の周邊』,アジア經濟研究所,1978.
- 館龍一部外 編,『中國經濟あすへの課題』,東洋經濟新報社,1984.
- 村田泰夫,『中國の開放經濟』,教育社,1986.
- 矢吹普,『チヤイナ・ウォハチングー經濟改革から政治改革へ』,蒼蒼社,1986.
- _____,『チヤイナ・シンドローム-限りなく資本主義に近い社會主義』,蒼蒼社,1986.
- _____,『圖說 中國の經濟水準』,蒼蒼社,1988.
- _____,編,『中國のペレストロイカ-民主改革の旗手たち』,蒼蒼社,1988.
- 東亞文化研究所,『現代中國と歴史像』,東亞學院,1988.
- 立花文平,『新中國はどこへ行く』,時事通信社,1988.
- 日中經濟協會,『中國をとりまく國際政治・經濟關係』,1987年4月.
- 野村浩一外 編著,『現代中國の政治世界』,(岩波講座,現代中國 第1巻),岩波書店,1989.
- 莫日達,『我國農業合作的發展』,1957.
- 蔣建平,『簡明 中國近代經濟史』,北京大學出版社,1985.
- 張榮豐,『中共經濟特區之研究』,中華經濟研究院,1983.
- 國家統計局 編,『中國統計年鑑 1988』,中國統計出版社.
- 中國統計出版社,『中國統計年鑑』,1989.

〈歐美文獻〉

- Crook, Frederick W., "The Reform of The Commun System and The Rise of The Town–Ship–Collective–Household System", China's Economy looks toward the Year 2000. Vol. 1,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May, 1986.
- Domes, J., Socialism in the Chinese Countryside : Rural Social Polic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1980.
- Fitzgerald, C. P., The Birth of Communist China,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 Ishikawa, Shigeru., China's Economic Growth Since 1949–, The China Quarterly, No. 94, 1983, pp. 242–281.
- Jingzhi, Sun, The Economic Geography of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Klatt, W., "China's New Economic policy : A Statistical Apprais", The China Quarterly, No. 80, 1979., pp. 716–733.
- Snil, Vaclay, "Energy in China : Achivements and Prospects", The China Quarterly, No. 65, 1976., pp. 54–82.
- Stavis, Benedict, PEOPLE'S COMMUNS AND RURAL DEVELOPMENT IN CHINA, Cornell University, 1974.